

## FOCUS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 개념 도입
- 사회적 경제 대표 연구기관 '칼 폴라니硏', 亞 최초 서울에 개소

## ZOOM IN

- 주말마다 도심 곳곳서 '농부의 시장' 개장

## HOT ISSUE

- 컨데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 내년에 서울 개최
- 사회적 경제 기업가 경험 공유, 토크 콘서트

## PHOTO@NEWS

- 공정무역페스티벌 / 영천시장 독립장 / 2015년 유니브 엑스포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 개념 도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_Vision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행정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박원순 시장 “노동존중특별시 만들 것”

먼저 서울시는 노동 교육과 상담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 시민과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노동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여성·청소년·감정노동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택배·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여성 쉼터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를 위한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기업 MOU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사협력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 안전 문제에 주목하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근로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추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정례화, 노동권익센터와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서울노동포럼(가칭) 개최를 통해 서울시 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노동정책과

## | 사회적 경제 대표 연구기관 ‘칼 폴라니研’, 2년 최초 서울 개소

사회적 경제 대표 연구기관인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KPIA:Karl Polanyi Institute Asia)’가 아시아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3번째로 서울에 문을 연다.

###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는 ...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칼 폴라니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됐으며, 현재 폴라니의 딸인 캐리 폴라니 레빗(Kari Polanyi-Levit) 맥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사회적 경제의 석학 마거릿 멘델(Marguerite Mendell)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거점을 두고 있다.

### • 칼 폴라니 이론, 서울형 사회적 경제 모델 구축 · 한국형 모델 제시

이번에 서울에 문을 여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연구자, 후원자, 조합원 등 다양한 주체가 연구소를 이끄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개소 후에는 칼 폴라니 이론과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과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 나아가 아시아 사회적 경제 발전 모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이론적 기반 강화와 사회적 신 우수사례 공유 등의 역할도 한다.



또한 서울의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몬트리올의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파리의 ‘칼 폴라니 연구소’ 등 사회적 경제 대표기관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사회적 경제 연결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소 개소가 서울 사회적경제의 제2의 도약발전 계기는 물론 ‘사회적 경제 중심도시’로의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

## | 주말마다 도심 곳곳서 ‘농부의 시장’ 개장

주말마다 서울 시내 공원, 한강공원, 명동 등 도심 곳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열린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농부의 시장’은 오는 12월까지 도심공원 5개소, 한강공원 7개소, 도심 지역 3곳 등에서 340회 가량 열릴 예정이다.

매월 첫째 주말에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둘째 주말은 ‘강남구 마루공원’, 셋째 주말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넷째 주말에는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그리고 광화문광장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농부의 시장’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 • 5월부터 12월 까지 67개 시·군 200여 개 농수특산물,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 판매

농부의 시장에서는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완도군, 수원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평 잣, 영월 옥수수, 평창 메밀 등 전국 67개 시·군에서 온 200여 개 농수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이날 판매하는 농수특산물은 해당 시·군에서 엄선·추천한 우수 상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한강공원에서는 한강주변 지역 농수특산물, 시내에서는 도시농부 수확물 판매

한강공원에서도 주말마다 농부의 시장이 열린다. 뚝섬과 잠실지구에서는 매주 주말, △여의도 △반포 △양화 △망원 △이촌 등 5곳에서는 격주로 시장이 개장되는데 이곳에선 양평군, 광주시와 같은 한강주변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명동 △혜화동 △양재시민의 숲에서 월 1회 시금치, 부추와 같은 유기농 작물과 콩가루, 참기름 등과 같은 1차 가공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 | 2016년 ‘컨데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 서울 개최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 CEO와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패션산업 대표행사인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콘퍼런스(Condé Nast International luxury conference)’가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이탈리아 피렌체 베키오궁에서 열린 ‘2015 컨데나스트 콘퍼런스’에서 콘퍼런스의 내년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된 것이다.

### • 럭셔리 브랜드 CEO, 디자이너 등 500여명 한자리에… 글로벌 패션산업의 대표행사



‘컨데나스트 콘퍼런스’는 세계최고 패션 매거진 보그(Vogue), 지큐(GQ), 얼루어(Allure)를 비롯한 143개 잡지를 발간해 5,400만 명에 이르는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 그룹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이 주최하고, 세계적인 패션저널리스트이자 보그 인터내셔널 에디터인 ‘수지 멘키스(Suzy Menkes)’가 주관 및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적인 행사

‘2016 컨데나스트 콘퍼런스’는 내년 4월 중 개최될 계획이며, 30여 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패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서울시는 콘퍼런스 개최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패션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 패션도시로 서울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전세계 패션브랜드 CEO와 패션계 인사들에게 서울을 아시아의 패션허브로 인식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디자이너와 해외 패션기업 CEO 면담 주선, 글로벌 브랜드 육성화 전략 공유기회 등을 제공해 국내 패션디자이너와 기업의 해외 진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융합경제과

## | '사회적 경제 기업가 경험 공유' 토크 콘서트 열린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변화 창조자(change maker)가 되어야 한다” 세계 최대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인 ‘아쇼카 재단’ 설립자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의 말이다.

• 4월부터 11월 19일 까지 총 7회 개최 ... 청년, 주거, 지역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책 논의



**2015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서울, 사회적경제에 질문을 던지다

이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사회적경제에 질문을 던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다.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최: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주최: 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1회 4/20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2회 5/27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전망: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전망  
3회 6/10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회적경제의 정책  
4회 6/24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회적경제의 정책  
5회 7/17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회적경제의 정책  
6회 8/14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회적경제의 정책  
7회 11/19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회적경제의 정책

일시: 2015. 4월 20일 19:00~21:00  
장소: LINC서울(신촌점) 337(해운대동)  
문의처: 02-6394-3333  
참가신청: www.wisdo.me

시민 모두가 변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는 4월부터 11월 19일(목)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총 7회에 걸쳐 「2015년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사회적 경제 토크 콘서트에서는 ‘서울, 사회적 경제에 질문을 던지다’를 주제로 청년, 주거, 공유경제, 지역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토크 콘서트는 사회적 경제 관련 종사자가 실제 운영으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이야기 방식으로 설명, 청중들과 공유하고 강의 후엔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는 참여형식으로 꾸며진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월 콘서트를 진행해 관심 있는 시민, 사회적 경제 관련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참가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위즈덤 홈페이지 <http://www.wisdo.me/11950>)으로 신청 후, 오후 7시까지 콘서트 장소로 오면 강연을 들을 수 있고 콘서트는 회당 100명씩 참가가 가능하다.





5월 9일 서울시와 (사)한국공정무역 단체협의회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주변과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5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필리핀 빈민의 성자라고 알려진 세이 컬린 신부와 함께 공정무역도시 서울 달성 지지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을 지역경제생태계의 중심이자 사회적 활력의 장소로 육성하기 위해 영천시장 '동립장'에서는 입맛대로 음식을 구매해 나만의 도시락을 꾸밀 수 있는 런치박스가 운영 중이다. 이 행사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행된다.

@소상공인지원과



5월 2일 '대학생, 행복에 미치다'를 주제로 적성, 진로, 취업, 연애, 취미 등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2015 유니브엑스포 서울'이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일자리정책과